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와 대중시민교육 (Folkbildning)

김 인 춘*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문화민주주의임을 주장하고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문화정책, 특히 대중시민교육(폴크빌드닝 folkbildning)이 스웨덴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의 하나로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폴크빌드닝의 미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교육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폴크빌드닝에서 빌드닝의 의미가 ‘계몽(enlightenment)’ 및 교육이란 점에서 이는 문화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문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 및 분배에의 평등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궁극적이고 최고 수준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서구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던 시대인 1868년 시작되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1912년부터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1809년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웨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덴은 귀족주의적 헌정주의와 전락적 식민주의가 지속되었고 1866년까지 4계급의 신분제 의회가 유지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 독점적 자본가세력의 부상,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계급갈등은 민주주의 전환을 위협하고 지체시켰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전환기에 스웨덴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겪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각성, 민주적 토론과 학습이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폴크빌드닝이 사회적 공간에서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으로 무장된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문화정책, 문화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

1. 서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문법에 무지했던 대통령의 ‘군주의 시간’을 중단시켰다.”, “‘국가의 시대’가 마감되고 ‘시민의 시대’가 열렸다”(송호근, 2017: 39). 2016년과 17년 사이 겨울 전후의 촛불시위로 2017년 봄에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민주주의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이러한 촛불시위가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civic democracy)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정치(citizen politics)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위기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민정치는 민주주의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현행 민주정치가 본래의 민주적 목표를 향해 가도록 시민적 긴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라는 것이다. 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유형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에 입각하고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존중하

는 정치체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서 발원하는 ‘토크빌적 가치’(Tocquevillian value)에 충실한 민주주의이며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가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라고 한다(송호근, 2017: 44-45).

한국의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행태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보다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촛불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평화적 시위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가장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에 대한 성찰과 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제도의 구축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요구되는 ‘사고와 인식과 행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홍식 외, 2014: 6-8). 시민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주체의식,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여의식, 정치적 운명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의 분출’(송호근, 2017: 44)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사고와 인식과 행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촛불시민’이 과연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인지, 어떤 규범과 역량을 갖고 있는 시민인가에 있다. 촛불시위 당시 촛불시민의 의식과 윤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당시의 시민의식과 시민윤리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충분한지가 그것이다. 사실 시민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인민의 지배’이자 ‘자기통치’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문화민주주의임을 주장하고 스웨덴 사례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데 있다. 즉, 문화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내면화한 개인이어야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시민의 시대’와 시민민주주의는 그 사회와 시민들의 민주적 수준에 의해 보장될 것이고, 사회와 개인의 민주적 수준은 문화민주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민주주의란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과 분배에의 평등한 접근을 말하며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없는 시민민주

주의는 피상적일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시민’이 노동계급 및 사회적 약자와의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추동할 역량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다. 시민민주주의가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이 핵심적 주체가 되는 것이 조건이라면 그 시민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시민인가. ‘시민적 가치’와 시민 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가. 시민민주주의가 문화민주주의를 내재하거나 전제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시민민주주의는 문화민주주의가 내재되거나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차별과 배제와 폭력, 심각한 양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의 조건에서 시민민주주의의 도래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촛불시위는 그동안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은 ‘일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에서 세계 최하위권이고, 특히 한국인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에게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한다.¹⁾ 경제적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다움의 자격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며(심보선, 2017) 이는 민주주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이 정작 일상에서 어떤 ‘사고와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파면, 정권교체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문화적 요소, 즉 인성과 인격, 시민적 아비투스(habitus)와 민주주의 습관을 함양하는 교육·학습 및 문화의 힘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민주주의란 바로 이러한 교육·학습 및 문화의 힘을 말하며 이는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시민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결사체와 시민의 힘, 참여와 연대의 힘, 신뢰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민주성과 공공성은 문화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하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촛불시위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극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1) 임채윤·김근태(2013), 심보선(2017)에서 재인용

정치 불신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성의 심화이다. 서로주체적 사회통합과 분배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과 철학이 학습되고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또한 자유와 평등의 실천에 대한 일상적 ‘작은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시민민주주의는 한갓 외형적 트렌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의 사회적 구현은 시민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 가치의 사회적 구현에도 필요한 조건임을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2.1 민주주의: 도덕적 규범과 ‘계몽’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는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6)에 따르면 스웨덴은 9.39 점(만점 10점)으로 노르웨이(9.93), 아이슬란드(9.50)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되었다.²⁾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의 작동(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라는 5개의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 모든 항목의 가치들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7.92점으로 5개의 각 항목별 점수는 9.17, 7.50, 7.22, 7.50, 8.24 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9.17)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작동, 정치참여, 정치문화 수준은

2) 스웨덴은 2015년 3위, 2014년 2위로 나타났고, 한국은 2016년 24위로 나타났다.

<http://felipesahagun.es/wp-content/uploads/2017/01/Democracy-Index-2016.pdf>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낮은 정치참여 및 정치문화 수준은 우리의 낮은 시민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 뿐 아니라 유권자, 즉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신명순, 2008).

2016-17년 겨울 전후의 촛불시위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국면적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다수의 주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치참여와 정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져온 촛불민주주의 혹은 광장민주주의를 ‘자발성’과 ‘기획성’이 결합된 ‘극장정치’(전상인 2017)로 격하하지는 않더라도 촛불민주주의가 진정한 시민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촛불시위에 등장한 다양한 ‘개인화된 집단행동’들, ‘집단화된 개인행동’들이 과연 ‘시민적’이고 ‘문화적’인지, 권력을 무너뜨리고 교체한 시민들이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이고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자.

고대 아테네시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는 수많은 개념과 다양한 모델이 있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데이빗 헬드(David Held)는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로 보고 인민의 참여 정도, 참여의 성격과 목표, 민주주의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경합하는 복수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4개의 고전적 모델, 즉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5개의 현대적 모델, 즉 경쟁적 엘리트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 구분하였다(Held, 2006; 데이비드헬드, 2010). 헬드는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모든 제도에의 평등한 참여기회, 개인의 자유(liberty)와 분배의 보장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개인(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Robert Dahl)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혼란과 이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로버트 달, 2009: 17; Dahl, 2015). 달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기통치’이며 통치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좋은 제도들이 있다 해도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동등한 참가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공동체가 추구할 정책이나 나갈 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달은 민주주의의 많은 이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과정이 갖춰야 할 5개의 기본 원칙으로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의 수용(inclusiveness)을 말하고 있다.

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은 아니다. 문화민주주의는 더 더욱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참여’와 ‘계몽’이 그것이다. 달(Dahl)의 ‘계몽적 이해’ 원칙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교육·학습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주권자들(시민)이 충분히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달의 ‘계몽’은 바로 문화민주주의 원리인 것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수준 높은 주체적인 교육·학습과 문화향유가 만들어내는 ‘계몽’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달의 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몽적 이해’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이며 문화민주주의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스웨덴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고 선진국들인 북유럽에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모델에서 매디슨모델(Madisonian model)로의 ‘전환(Madisonian turn)’이 그것이다(Bergman and Strøm, 2011). 대중과의 소통 약화, 카르텔정당의 등장, 정치의 사법화, 유럽통합 등이 노르딕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제도인 정당과 의회

정치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뢰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demanding citizens)’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는 다시금 이론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적 형태이며, 숙의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상호이해와 합의, 소통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민주주의나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한 모델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란 민주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통의 문제와 정책을 합의하고 사적 개인을 공적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체제나 제도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과 시민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와 주권자들의 사회적 삶이 얼마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가,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얼마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가가 그것이다. 고전적 공화주의부터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덕성(virtus) 있는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헌법 등 제도 자체로는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그 체제가 시민적이지도 문화적이지도 않아 민주주의가 결핍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아주 많기 때문이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말하는 ‘흠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s)’, ‘권위적 체제(authoritarian)’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또는 ‘민주주의의 버리기(forging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making democracy social)’ 것이었다(Eley, 2002).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세 가지 축 중 첫째는 민주주의가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라는 원칙적 선언에서 유추되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을 구성하는 작업이었다(홍태영, 2014).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의 구현이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

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이고 견고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 문화의 발전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민주주의 ‘문화’(culture of democracy)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주관하는 능력, 즉 행동과 행위, 규범을 의미한다. 민주적 사회의 시민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자유로운 사회의 시민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 책임을 추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적 권리와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규칙들이며 갈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타협과 합의로 귀결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관용의 필요성과 갈등의 불가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Diamond, 2008).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문화가 중요하며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이며 민주주의 행동수칙, 비판적 관점을 갖는 ‘문화적 시민’을 만드는 데 있다.

문화와 민주주의 관계의 중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문화민주화는 예술의 ‘문명적 가치 (civilising value)’, 즉 문화예술이 시민성과 민주성, 즉 계몽을 함양하는 역할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로 고급문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최우선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소득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이러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왔다(Evrard, 1997). 반면, 1970년대 유럽 문화정책 논의에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주로 문화민주화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는데 문화민주화가 주류적 규범 밖의 문화적 표현과 행위를 무시하고 문화에 대한 top-down식의 엘리트주의적이고 획일적 접근을 갖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넘어 문화생산 수단과 분배에 대한 접근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모두 본질적으로 문화정책의 목표이다. 문화민주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을 민주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민주화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에의 평등한 접근에 초점을 맞

춘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Vestheim, 2014). 문화 민주주의는 급진적인 사상으로 민주주의 이념의 궁극적이고 최고 수준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의 지배’와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행동의 영역’인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의 예술적 표현들, 즉 문학, 예술, 영화 등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예술에 대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창작의 자유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휴머니티의 비전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각성과 계몽에 의해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3.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지체된 민주화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역사적으로 스웨덴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여와 연대, 평등과 자유의 융합, 평등교육 및 대중시민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제도적으로 스웨덴 민주주의는 노르웨이의 영향을 받았는데 노르웨이는 1814년,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선포하였다(김인춘, 2014). 19세기 후반부터 스웨덴은 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정치 체제는 새로운 계급관계와 사회갈등에 직면하였다. 19세기 말부터 강력한 대중운동이 등장하였는데 자유교회운동(Free Church movement), 금주 절제운동(Temperance movement), 노동운동 등이 그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등 스웨덴 진보주의자들은 노르웨이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여 노르웨이 진보주의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기도 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자유주의자보다 사회주의자들이 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Hurd, 2000: 246). 1909년 남성선거권이 이루어졌으며 1921

년에 보통선거권이 가능해졌다. 1917년 총선에서 자유-사회민주당 연합정부가 수립되었고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ism)가 도입되었다.³⁾ 자유주의자들 및 노동계급의 완전한 민주주의 요구는 1918년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민주주의는 최소한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협한 요인은 많았으며 실제 민주화가 지체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 선거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하고 제도화된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이다. 이 시기는 또한 대중민주주의의 성립과 자본주의의 확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Eley, 2002; 오경환, 2014).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 대중민주주의가 가져온 계급정치의 등장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창립된 시기를 보면 1871년 포르투갈 사회당이 최초이고 그 다음이 1875년 창립된 독일 사회민주당이다. 스웨덴은 1889년에 사회민주노동당(이하 사회민주당)이 창립되어 유럽에서는 늦은 편에 속하였다. 덴마크사회민주연맹(1876), 체코사회민주당(1878),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1879), 헝가리노동당(1880), 프랑스사회주의노동당(1880), 네덜란드사회민주리그(1880), 폴란드프롤레타리아트당(1882), 영국사회민주연합(1883), 벨지움노동자당(1885), 노르웨이노동당(1887), 스위스사회민주당(1888),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1889)보다 늦었기 때문이다(Eley, 2002: 63). 노조총연맹의 설립도 늦었다. 스웨덴의 노조총연맹(LO)은 1898년에 설립되었지만 영국 TUC는 1868년에, 스페인총노조연맹은 1888년에, 독일과 헝가리는 1891년에, 오스트리아는 1893년에 설립되었다(Eley, 2002: 70).

의회민주주의나 (남성)보통선거권 도입도 늦었다. 노르웨이는 1884년에 의회주의를 완성하였지만 스웨덴은 1917년에 도입되었다. 남성선거권은 독일은 1871년(1849년 제국헌법에 명시됨), 노르웨이는 1898년에 도입되었지만 스웨덴은 1909년에 도입되었다. 1809년 신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웨덴은 귀족주의적 헌정주의와 전락적인 대외 식민주의가 지속되었고 1866년까지 4계

3) <http://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democracy/the-history-of-the-riksdag/>

급의 신분제 의회가 유지되었다(김인춘, 2016).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를 지배하였고 독점적 자본가집단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노사간 계급갈등은 민주주의 전환을 위협하고 지체시켰던 것이다(Sejersted, 2011).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전에 치러진 유럽 각국의 총선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 다른 나라의 사회당 계열 정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1903년에 창립된 핀란드 사회민주당으로 1913년 총선에서 43.1%를 획득했고,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1914년 9월 총선에서 36.5%를 획득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였다. 세 번째는 독일사회민주당으로 1912년 총선에서 34.8%를 얻었다(Eley, 2002: 66).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전환기에 스웨덴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겪지 않았다. 1909년 총파업 투쟁과 1931년 오달렌 참사를 비롯한 극심한 노사갈등,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갈등, 전통적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 갈등이 1930년대까지도 심각했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노동운동이 기존 정치와 권력을 타파하고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각성, 민주적 토론과 학습이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구조적이고 전사회적인 전환의 시기에 ‘시민들의 역량’으로 스웨덴은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Berman, 1998; Herlitz, 1939; Hurd, 2000; Safstrom, 2016). 그 후, 잘 알려진 대로 1932년 사회민주당의 집권과 1938년의 노사대타협으로 ‘스웨덴 모델’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보편적 복지국가와 완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되던 시기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무역확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와 1차 세계대전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자유방임국가와 함께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스웨덴은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대외노선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1905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해체로 국내의 정치적, 사회

적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김인춘, 2016). 그럼에도 스웨덴은 1차 세계대전 전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유-사회주의세력 연합이 등장했고 의회개혁에도 성공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허드(Madeleine Hurd)에 따르면 단순히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허드는 1870-1914년 시기 스웨덴 스톡홀름과 독일 함부르크의 공공영역 담론과 계급관계에 대한 역사적 비교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론’이 말하는 부르주아계급의 성장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연대와 문화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Hurd, 2000). 도덕성과 자율성, 교육, 품위의 개념으로 조직되고 구성된 공공영역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번성하는 항구인 스톡홀름에는 상업 및 금융 엘리트에 대항하는 대중의 민주주의 운동이 1860년대에 등장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상은 매우 약했고 자유-노동의 반엘리트 ‘사회적 연대’로 참정권 및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 소통하고 연대했던 것이다. 독일과 달리 강력한 자유-노동 연합은 스웨덴의 평화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유주의적인 공공영역은 하층계급의 공공영역에의 접근에 대한 규범, 즉 ‘품위전쟁 (wars of respectability)’이 나타났는데 공적활동에 참여하는 정당한 행위자로서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자기규율적인 공적 행위가 요구되었다. 이는 교육과 ‘사회적 몸가짐(social grooming)’에 대한 강조였다. 금주-절제운동 같은 캠페인은 ‘반헤게모니 도덕성(counter-hegemonic morality)’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면서 진실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공적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고양했다. 노동계급 스스로 교육과 학습, 자기규율을 통해 ‘시민성’과 ‘문화성’, ‘계몽’을 함양했던 것이다(Gougoulakis and Christie, 2012). 역사적으로 스웨덴 의회(Riksdag) 및 지방의회는 재산과 교육받은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1884년 총선 이후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연대는 1918년 헌법이 개정되고 스웨덴의 귀족주의적 헌정주의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이었다.⁴⁾

4) 1884년은 당시 스웨덴·노르웨이연합체에서 스웨덴의 지배를 받던 노르웨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선언한 시기로 노르웨이 민주주의 발전에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하버마스적 공공영역 담론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공영역에 ‘시민’과 ‘문화’가 민주적으로 내재되었던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습속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공공영역이라는 사회적 공간이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으로 무장된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1868년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문화교육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선거권의 확대가 19세기 민주주의의 큰 과제이자 성과였다는 점에서 스웨덴 보다 빠른 1871년에 남성선거권이 도입된 독일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경험을 설명해준다. 즉, 선거로 구현되는 대표성을 대체할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가 독일의 공공영역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오경환, 2014). 이에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문화교육과 문화민주주의를 살펴보자.

4.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민주주의

스웨덴 문화정책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들어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군주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기관을 감독하거나 운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은 문화교육, 공공박물관,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이었고 상당부분 민간후원자나 자원봉사의 지원을 받았다. 한편, 19세기 말 급속한 산업화로 등장한 노조운동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운동을 확산시켜 왔다.⁵⁾ 이는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형태로 1868년 2개의 학교가 만들어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노조운동, 금주운동, 자유교회운

물론 덴마크, 스웨덴의 민주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기반이 되었다(김인춘, 2016).

5) 이러한 대중교육운동은 덴마크의 교육운동가인 그룬트비(Grundtvig)에 의해 국민고등학교라는 형식으로 184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 후 이러한 교육운동이 1864년 노르웨이의 민중고등학교, 1868년 스웨덴의 민중고등학교 등 주변 나라들로 확산되었다.

동 등에 의한 대중 문화교육도 활발하였다. 민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대중시민교육(폴크빌드닝 folkbildning)⁶⁾은 인격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의 학습 또는 지식(빌드닝 bildning)과 관련되며 스웨덴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스웨덴어 'bildning'은 '계몽(enlightenment)'를 뜻한다고도 한다.⁷⁾

폴크빌드닝은 평생교육 그 이상의 교육이고 일반적인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이다. 스스로를 위한 계몽의 기회이고 각자가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빌드닝 개념은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대중교육(popular bildning)의 형태로 모두에게 교육의 권리와 문화적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폴크빌드닝의 핵심이다.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배움을 얻기도 한다. 학습동아리 참가자들은 서로 학습을 공유하고 자신의 관심사항과 배움의 열망을 축적하는 것이다. 폴크빌드닝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대중운동은 학습동아리협회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network으로 서로 간에 관계와 협동을 할 수 있다.⁸⁾ 스웨덴 정부는 폴크빌드닝에 1912년부터 재정지원을 하면서 폴크빌드닝은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공적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모든 정당들이 스웨덴 사회에서의 폴크빌드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담론 형성, 시민교육을 위한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라는 공동체 시민교육이 바로 이러한 대중시민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스웨덴을 '고대 아테네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의 민주주의(a modern democracy on Ancient foundations)'로 보는 배경이다(Herlitz, 1939).

스웨덴 정부의 문화정책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급속히 발전해 왔다. 1912년부터 도서관에 대한 국가지원이 시작되었고,

6) folkbildning은 인민 또는 대중이라는 뜻의 folk와 계몽 또는 교육을 의미하는 bildning이 합쳐진 용어로 대중 성인교육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로 대중시민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7) <http://www.statvoks.no/emma/FRAMSYN-engoctober.pdf> p.3

8)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rapporter/ovriga-rapporter/significance-of-folkbildning_web-2.pdf?epieditmode=true 참조

1928년에는 전국의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국가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1930년대 등장한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이 문화정책을 포함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증가하였다. 초기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중 문화교육 및 평생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주도 이념과 회원 중심의 대중운동조직 이념이 합해진 조합주의적 모델로 조직되었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 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은 수준 높은 문화에의 평등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었다. ‘인민의 집(Folkhemmet)’이라는 1930년대의 복지국가 이념이 교육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복지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시설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관 및 활동의 지방 분산을 문화정책 목표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것’이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을 통해 스웨덴의 문화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홍재웅, 2011). 평등이 크게 강조된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이념이 문화영역에도 적용되면서 문화정책을 둘러싼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들어 문화정책은 예술가 지원이나 순수 문화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활동을 중시하였다. 1940년대에 도입된 공립 음악학교가 196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290개 지자체 중 283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음)가 각각의 음악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모든 아동 및 학생들이 음악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많은 의제는 오늘날 스웨덴 문화정책의 근간이 된 ‘1974년 문화정책법’으로 발전되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다.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 문화정책은 문화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실 오랜 기간 스웨덴은 문화부와 교육부가 하나의 정부부처로 통합되어 있었다. 문화부는 1991년 교육부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예술교육 등 많은 문화 참여 교육활동은 여전히 교육부의 책임이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 두 부처는 2004-2006년 짧은 기간 다시 통합되기도 했다.

스웨덴의 정규교육은 1920년대부터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 다른 대중적·진보적 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활동중심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삶과 연관된 교육과정, 책임있는 민주시민 교육, 특히 스웨덴의 문화예술교육과도 크게 관련되었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교육개혁이 추진되었고, 특히 1940년대부터 1972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기존의 전통적 교육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이윤미, 2015). 12년의 무상 공공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특히 독서를 중시한다.

문화복지와 문화민주주의를 목표로 해 온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복지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복지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고급문화에의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복지와 권리로서의 문화 개념은 스웨덴 문화정책의 근간이다. ‘문화의 민주화 단계(1960년-1975년)’⁹⁾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에게 정치와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었다. 당시 공연예술의 주 관객이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에 한정되어있던 상황을 바꿔 많은 소외집단도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스웨덴의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는 ‘문화와 민주주의 담당(Minister

9) 스웨덴은 1531년 구스타프 바사 국왕이 루터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 1951년에야 종교자유가 허용되었다. 국교의 막강한 권위와 강제를 거부하는 자유교회운동이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루터교의 국교 지위는 개방화와 세계화, 다문화라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1995년 의회에서 공식 철폐되었다.

for culture and democracy)’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는 문화부 장관 책임 하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화(more culture for more people)’를 목표로 하고 있다.¹⁰⁾ ‘문화와 민주주의 담당 장관’이란 표현은 문화가 곧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곧 문화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밀접한 관계는 문화가 곧 교육이고 문화와 교육과 민주주의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 및 민주주의 관련 정책은 사회와 구성원의 결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정책, 소수자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문화부의 주요 업무 영역은 시민사회(civil society), 문화(culture), 민주주의와 인권(democracy and human rights), 미디어(media)이다.¹¹⁾ 스웨덴 정부는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차별금지 및 사회통합 업무도 담당한다.¹²⁾

스웨덴의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이 공공도서관과 독서진흥이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모으는 곳이 아니라, 독서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기관이며 교육부 소관이다. 스웨덴의 모든 공공도서관(주로 기초자치체 도서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부에도 보고한다. 스웨덴에는 1600년대에 세워진 왕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예테보리대학 도서관, 룬드대학 도서관, 옘살라대학 도서관 등 4개의 주요 도서관 외에 4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1997년 1월에 발효된 ‘도서관법’은 모든 행정기관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웨덴 국민들이 공공도서관 책을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도서관들은 전시회, 연주회, 토론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은 만민교육이라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세기 초 노조와 정당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시민교육 차원의 학습동아리 운동이 크게 일면서 생겨난 작은 도서관들이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체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유로

10)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11)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12)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바로미터-유럽의 문화활동'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90%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7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는 독서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도서관법을 대체해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스웨덴의 새 도서관법은 지식의 소통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철학 아래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외국계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2002년 정부는 독서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에서 6%로 낮추었다. 그 결과 책값이 낮아지면서 독서가 늘어났다고 한다.

스웨덴 문화정책은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와 창의성의 융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문화민주주의와 보편적 문화교육에 기초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 요소였다. 독서진흥과 다양한 공공 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스웨덴 문화정책의 기본 이념은 예술적 자유와 문화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예술과 문화를 육성시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심화와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화로 문화정책도 변화하였다. 문화정책의 분권화, 지자체의 문화산업 활성화, 창조산업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 문화예술과 산업의 융합, ICT와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유로바로미터-유럽의 문화활동'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 사람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참여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적극적이며 년 1회 이상 문화기관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한다. 성인의 40% 극장공연 참석, 18% 클래식 공연, 47% 박물관 방문, 50% 공공도서관, 6% 합창단 공연, 82% 1권 이상 독서, 22% 시나 일기를 쓰며, 성인의 5%가 문화단체의 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예술 및 문화교육, 예술가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5.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 발전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으로 폴크빌드닝(folkbildning)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이 발전해 왔다. 19세기 후반 소수에게만 고등교육 기회가 주어지던 시기에 일반 대중의 지식에 대한 열망과 스스로 사회발전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폴크빌드닝의 핵심 개념은 모두가 스스로 지식과 자기개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폴크빌드닝의 목표는 교육·학습의 격차가 최소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정책 관련 중앙정부 예산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28%)을 차지하는 것이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지원이다(Harding, 2015: 36).¹³⁾

폴크빌드닝은 사회적 공간에서 일반대중의 교육과 참여, 스스로의 계몽을 중시했다. 1868년에 시작된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오늘날의 시민학교)는 자유주의적인 대중시민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크게 확산되어 민주주의 교육과 계몽에 큰 역할을 하였다(Lund, 1938). 현재 폴크빌드닝은 전국적으로 150여개의 시민학교와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study associations)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는 매년 30만여개의 공부모임과 25만여개의 문화프로그램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동아리협회 중 대표적인 것이 ABF로 노동자 교육을 목적으로 191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9만여 학습동아리에서 75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스웨덴 대중시민교육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단체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설립된 협회로 1940년에 설립된 Medborgarskolan(www.medborgarskolan.se)는 보수적 가치를 앞세운 사회개혁운동 단체이다. Sensus(1930년 설립)는 국가종교 교리에 입각한 시민교육단체이고, Folkuniversitet(1933년 설립)는 대학생들이 조직한 시민교육기관이다(von Essen and Åberg 2009). 1967년 설립된 SV는 농민과 도시자영업자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단체이다. 중요한 것은 설립 당시의 정치적 노선과 달리 모든 협회

13)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sweden.php>

가 문화예술, 토론, 교양 등의 시민교육을 중시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ABF(Arbetarnas Bildningsförbund,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ww.abf.se)는 사회민주당과 노조가 연계해 민주주의, 다양성, 정의, 평등을 목표로 1912년 노동자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889년 사회민주당 창당과 1898년 노조총연맹(LO)의 설립으로 노동조직화가 본격화되었고 20세기 들어 이념대립과 노사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BF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중시했고, 사회민주당과 연계되어 있었지만 정당이나 종교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였다. 노동운동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을 교육하였고, 특히 모든 시민이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F는 민주적인 정치조직이자 문화조직이고, 노동조직이자 협동조직이었다. 특히 ABF의 영향력은 1920년대, 30년대에 매우 컸는데 당시 일반아동의 공교육이 13-14세까지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Elgán and Scobbie, 2015: 32). 따라서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민주적 시민',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모든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는데 시민학교(folk high schools)와 학습동아리협회(study associations)가 그것이다.¹⁴⁾ 학습동아리협회는 학습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폴크빌드닝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민학교는 최장 4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강좌와 단기강좌가 있다. 장기강좌 중 일부 특별강좌는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단기강좌는 최대 3주 기간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0년 기준으로 150개의 시민학교와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가 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150여개의 시민학교 중 100여개가 협회, 재단, 대중운동단체, 비영리단체와 연관되어 운영되며 나머지 50여개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두 종류의 단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민학교는 매 학기 약 2만6천5백 명이 장기코스에 참여하고 약 8만 명이 단기코스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조직인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에서는 매년 30만개 가까운 공부모임(study circles,

14) www.eaea.org/country/sweden. 2017년 5월 29 검색

studieförbund)이 운영되고 200만 명의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5만여 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5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부모임의 주요 과목은 음악, 미술, 미디어,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 순으로 인기 과목이라고 한다. 특히 음악, 미술, 미디어가 전체 활동의 61%를 차지하여 문화예술 경험과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폴크빌드닝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며 스스로 학습내용을 개발하고 공부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학강좌, 창조적 작업활동, 문화·취미 활동, 예술 강좌, 직업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중시민 교육은 민주주의 창달, 문화생활 향상, 국민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교육 뿐 아니라 노동인력 확보와 고급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폴크빌드닝지원법(The Decree on Government Subsidies to Folkbildning)’에 따르면 대중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발전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며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문화생활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부가 ‘신교육법(The new Education Act - for knowledge, choice and security)’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성인교육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인평생교육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성인교육(municipal adult education), 학습지체자성인교육(education for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이민자스웨덴어교육(education in Swedish for immigrants, Svenska för Invandrare, SFI)가 그것이다. 이 법안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결정은 시민학교(folk high schools)로 하여금 SFI의 스웨덴어 교육과 성인평생교육을 같이 운영하게 만든 것이다.

스웨덴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rådet,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가 2005년 발간한 *Folkbildning of the future, its role and objectives*에 폴크빌드닝의 목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

15) Folkbildningsrådet *Facts on folkbildning in Sweden*,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fakta-om-folkbildning/fbr-facts-web.pdf>

시하고 있다.¹⁶⁾ Folkbildningsrådet는 폴크빌드닝 관련 비영리 중앙조직으로 정부와 의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학습동아리협회와 시민학교에 배분하고 예산서와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평생교육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Folkbildningsrådet는 3개의 회원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스웨덴학습동아리협회연합(The Swedish National Federation of Study Associations), 시민학교운동조직(the Interest Organisation for Popular Movement Folk High Schools), 스웨덴지자체협회(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가 그것이다.

폴크빌드닝은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공식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토론과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서로 다른 모두의 관점과 생각을 존중한다. 정부가 거의 모든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대중교육조직은 비영리조직 등 사회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Folkbildningsrådet(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이 2011년 발간한 *The Significance of Folkbildning to Swedish Society*에 폴크빌드닝은 스웨덴 사회의 민주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한다. 시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인 것이다. 학습동아리협회와 시민학교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에의 접근 기회를 확대시켰다.¹⁷⁾ 스웨덴 사회에 폴크빌드닝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2005년 법에 명시된 폴크빌드닝에 대한 국가 지원의 목표는 첫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교육격차를 없

16) <http://www.statvoks.no/emma/FRAMSYN-engoctober.pdf>

17)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rapporter/ovriga-rapporter/significance-of-folkbildning_web-2.pdf?epeditmode=true p. 3-5

애고 사회의 교육과 문화적 각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넷째, 문화생활에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6. 결론: 문화와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공공정책이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은 참여와 연대, 평등과 자유의 융합, 평등교육 및 대중시민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로 평가되고 있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0여개국이며, 북유럽 5개국은 모두 9위내에 들어가 있다.¹⁸⁾

헬드(Held)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모든 제도에의 평등한 참여 기회, 개인의 자유와 분배의 보장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달(Dahl)은 민주주의의 5개 기본원칙으로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의 수용을 꼽고 있다.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학습과 문화민주주의의 장이었다. ‘시민참여’와 ‘계몽’이 그것이다. 폴크(folk)가 인민, 시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참여’ 원칙에 부합하고, 빌드닝(bildning)이 학습, 계몽, 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달의 ‘계몽적 이해’ 원칙과 일치한다. 달의 ‘계몽’은 바로 문화민주주의인 것이다.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교육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점에서 ‘계몽’이고 문화민주주의이다. 스웨덴 시민의 폴크빌드닝이나 스웨덴 정부의 문화정책 모두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실천해 왔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달의 민

18) 2016년 EIU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위 노르웨이,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5위 덴마크, 9위 핀란드로 나타났다.

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몽적 이해’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이며 문화민주주의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folkbildning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을 구현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온 것이다.

스웨덴의 문화정책에서 폴크빌드닝(folkbildning)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이민 증가와 다문화 사회에서 폴크빌드닝은 평등과 사회통합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폴크빌드닝이 실업 등 많은 사회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통합의 노력은 중요하다. 이민자는 물론 모두에게 스스로 지식과 자기개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문화민주주의와 보편적 문화교육에 기초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왔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문화정책이 예술과 문화가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킨다는 믿음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중시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 및 예술적 가치가 모든 공공정책 영역에서 고려되고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 이야기들이 문화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찰되는 것이며, 이는 일상의 민주주의에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모든 시민이 문화를 경험하고 창조적 역량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와 창의성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폴크빌드닝을 포함한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시민민주주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시민민주주의가 바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인민의 지배’이자 ‘자기통치’라는 점에서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그 자체가 시민민주주의이자 문화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외 역. 2013. 『민주주의』. 동명사.
- 김인춘. 2014.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통합과 분리”, 김학노 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편, 사평아카데미.
- _____. 2016. “스웨덴 식민주의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 『서양사연구』. 54권, 서양사연구회.
- 데이비드 헬드 지음, 박찬표 옮김.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 송호근. 2017. “이행기, 무엇을 해야 하나 -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주최 시국대토론회 발표논문, 2017년 1월 18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 신명순. 2008. “정치와 정치문화”, 민준기 외 『한국의 정치 : 제도, 과정, 발전』. 나남출판.
- 심보선. 2017. “억하심정은 누가 푸나” 시사IN 508호 2017.6.10, p.80.
- 오경환. 2014.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 : 20세기 초 미국, 프랑스, 독일” 『서양사연구』. 제51집, 한국서양사연구회.
- 이윤미. 2015. “중합학교제도화 이전 스웨덴에서의 진보주의 교육”, 『스칸디나비아연구』.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임채윤·김근태. 2013. 한국불평등연구회 발표 논문, 2013년 7월 중앙대학교.
- 전상인. 2017. “광화문광장의 극장정치”, 2017 전기 비교사회학대회(2017.6.2) 발표논문.
- 조홍식 외. 2014. 『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사평아카데미.
- 홍재웅. 2011. “스웨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2호 (2011년) pp.25-52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_____. 2010. “아동 청소년을 위한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자본의 축적”,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1호 (2010년) pp.17-44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홍태영. 2014.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조홍식 외 2014. 『유

『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 Andrew, Caroline and Monica Gattinger. 2005. *Accounting for Culture: Thinking Through Cultural Citizenship*. The University of Ottawa Press.
- Aylott, Nicholas (ed.). 2014. *Models of Democracy in Nordic and Baltic Europe: Political Institutions and Discourse* (The Nordic Experience). Routledge.
- Bergman, Torbjörn and Kaare Strøm (eds). 2011. *The Madisonian Tur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ary Democracy in Nordic Europ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rman, Sheri. 1998.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 Blossing, Ulf, Gunn Imsen, Lejf Moos (eds). 2014. *The Nordic Education Model: 'A School for All' Encounters Neo-Liberal Policy*. Springer.
- Dahl, Robert A. 2015. *On Democracy*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 Dahlström, Edmund. 1989. *Power relations at the workplace: Research and policy on working life democratization and welfare* (Study of power and democracy in Sweden) Maktutredningen.
- Diamond, Larry. 2008.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Times Books.
- EAEA. 2011. *Country Report on Adult Education in SWEDEN* Helsinki,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Adults. www.eaea.org/country/sweden.
- EACEA. 2008.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Sweden 2007/08" i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ducation Audiovisual & culture executive Agency/European Commission.
- Eley, Geoff. 2002. *Forging Democracy -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Elgán, Elisabeth and Irene Scobbie. 2015. *Historical Dictionary of Sweden* (Historical Dictionaries of Europe) 3rd e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Evrard, Yves. 1997. "Democratizing Culture or Cultural Democracy?"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ume 27, Issue 3.
- Fleisher, Frederic. 1967. *The New Sweden: The Challenge of a Disciplined Democracy*. New York: David McKay Co.
- Garefelt, Björn. 2010. "Swedish folkbildning and democracy".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1호 pp.45-63.
- Gattinger, Monica. 2011.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and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the Canadian Public Arts Funders (CPAF) Annual General Meeting, November 16-18, 2011.
- Gougoulakis, Petros. 2016. "Popular Adult and Labor Education Movement in Sweden - History, Content, Pedagog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90.
- Gougoulakis, Petros and Michael Christie. 2012. "Popular education in times of societal transformation – A Swedish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Vol.52, No. 2.
- Harding, Tobias. 2015. "Country Profile: Sweden". Council of Europe/ERICarts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7th edition 2015, February 2015 ([http:// www.culturalpolicies.net](http://www.culturalpolicies.net)).
- _____. 2015. "BILDNING as a Central Concept in the Cultural Policy of the Swedish Government - From Arthur Engberg to Alice Bah Kuhnke" *Nordisk kulturpolitisk tidsskrift* 02 / 2015 (Volum 18).
- Herlitz, Nils. 1939. *Sweden: A Modern Democracy on Ancient Found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urd, Madeleine. 2000. *Public Spheres, Public Mores, and Democracy: Hamburg and Stockholm, 1870-1914*.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arvonen, Jan Sundberg(eds). *Social Democracy in Transition: Northern, Southern and Eastern Europe*. Aldershot: Ashgate.
- Kleberg, Carl Johan. 1987. "Cultural Policy in Sweden", in Cummings, Milton

- C., Jr & Katz, Richard S.(eds), *The Patron State: Government and the art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Ney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74–198.
- Laginder, Ann-Marie and Henrik Nordvall (eds.). 2013. *Popular Education, Power and Democracy: Swedish Experiences and Contributions*. Leicester, UK: NIACE.
- Lauwerys, J.A(ed). 1958. *Scandinavian Democracy: Development of Democratic Thought and Institutions in Denmark, Norway and Sweden* Danish Institute.
- Lewin, Lief. 2006. *Ideology and Strategy: A Century of Swedish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berg, B.. 2012. “Cultural Policy in the Swedish Welfare state”. Paper presented at the Asan Conference *Understanding the Swedish Welfare Model*, Seoul, South Korea, 30–31 Aug. 2012. Seoul, Korea: Asan Institute.
- Lindstrom, Lisbeth. 2013. “National cultural policies: The Swedish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ocial Science* 3(3):814-832.
- Lund, Ragnar. 1938. “Adult Education in Swede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197.
- Nilsson, Nils Gunnar. 1980. *Swedish cultural policy in the 20th century*. Stockholm:The Swedish institute.
- Matthies, Aila-Leena (ed). 2006. *Nordic Civic Society Organisations and the Future of Welfare Services: A model for Europ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Copenhagen.
- Meyerscough, J.. 1990. “National cultural policy in Sweden: report of a European group of exper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Micheletti, Michele. 1995. *Civil Society and State Relations in Sweden* Routledge.
- Misgeld, Klaus, Karl Molin, Klas Åmark (eds). 2001.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Moos, Lejf (ed). 2013. *Transnational Influences on Values and Practices in Nordic Educational Leadership: Is there a Nordic Model?*. Springer.
- Mulcahy, Kevin. 2016. *Public Culture, Cultural Identity, Cultural Policy: Comparative Perspectives*. Palgrave.
- Oliver, Leonard. 1987. *Study Circles: Coming Together for Personal Growth and Social Change*. Seven Locks Press.
- Pestoff, Victor A. 1998. *Beyond the Market & State: Social Enterprise &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shgate Pub Ltd.
- Petersson, Olof. 1987. *Democracy-ideal and reality (Study of power and democracy in Sweden)* Maktutredningen.
- Safstrom, Mark. 2016. *The Religious Origins of Democratic Pluralism: Paul Peter Waldenström and the Politics of the Swedish Awakening 1868-1917*. Pickwick Publications.
- Sejersted, Francis. 2011. *The Age of Social Democracy: Norway and Sweden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SOU). 2009. *Report of the Swedish Committee of Inquiry on Cultural Policy*. SOU 2009:16.
- Stensland, Per G. 1945. *Adult education: A force in Swedish democracy* American-Scandinavian Foundation, New York, USA.
- Strom, Marie-louise(ed). 2008. *Learning and Living Democracy: Non-Formal Adult Education in South Africa and Sweden*. IDASA Publishers.
- Svedin, Uno and Britt Hägerhäll Aniansson. 2002. *Sustainability, Local Democracy and the Future: The Swedish Model*. Springer.
- Tam, Nicholas. 2016. *Scandinavian Design and its Philosophical Underpinnings to a Social Democracy*. Publisher lulu.com.
- Trägårdh, Lars (ed). 2007. *State and Civil Society in Northern Europe: The Swedish Model Reconsidered*. Berghahn Books.
- Vestheim, Geir (ed). 2014. *Cultural Policy and Democracy*. Routledge.

von Essen, Johan and Pelle Åberg. 2009. *Swedish Study Associations and their Members. A Link to Civil Society or a Loyal Business Relation? Civil Society as a Arena of Learning*. Esrea Network on Adult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Stockholm.

www.folkbildning.se.

http://www.folkbildning.se/Documents/B_Rapporter/%C3%B6vriga_rapporter/Folkbildningens_framsyn/FRAMSYN-eng.pdf.

<http://felipesahagun.es/wp-content/uploads/2017/01/Democracy-Index-2016.pdf>

http://www.folkbildning.se/Documents/E_Fakta_om_folkbildningen/Facts%20on%20folkildning_2011_web.pdfhttp://www.folkbildning.se/Documents/B_Rapporter/%C3%B6vriga_rapporter/%C3%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rapporter/ovriga-rapporter/significance-of-folkbildning_web-2.pdf?epieditmode=true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fakta-om-folkbildning/fbr-facts-web.pdf>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sweden.php>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http://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democracy/the-history-of-the-riksdag/>

<http://www.statvoks.no/emma/FRAMSYN-engoctober.pdf>

www.eaea.org/country/sweden

<Abstract>

Cultural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Democracy and Folkbildning in Sweden

Kim, Inchoon*

This paper examines that historically Sweden's cultural policy and Folkbildning(popular education) has crucial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weden and argues that cultural democra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civic democracy. Robert Dahl argued that 'enlightened understanding' is one of key five principles for democracy. The mission of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to foster 'enlightened understanding' for all people as 'bildning' means enlightenment and education. This mission of Folkbildning is equivalent to the mission of cultural democracy since cultural democracy seeks to make art and education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focuses on inclusion, diversity and access to the means of cultural production. Cultural policy has important and practical meaning to democracy and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key component of cultural policy since 1912. Folkbildning's conceptual heritage stretches back to the late 19th century when large groups of the people were excluded from higher education and arist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estate system were strong. Sweden was a latecomer in democratization process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Folkbildning has contributed to the peaceful and democratic social transformation of Sweden through self-directed and collaborative education and learning and civic morality involving respectability, rationality and self-discipline. Folkbildning's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working class education was important in attaining a condition for working clas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and making them as 'cultural citizen'.

Key Words: Folkbildning, cultural policy, cultural democracy, civic democracy, Sweden democracy

성명: 김인춘
소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E-mail: ickim95@yonsei.ac.kr

논문 접수일: 2017.6.9.

논문심사 완료일: 2017.6.28.

수정원고 접수일: 2017.6.29.

게재 확정일: 2017.6.29.

www.kci.go.kr

